

원전/재난 아시아의 지금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뒷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본 보물찾기 달인 회사원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㉔ 자극 총만했던 서양 언론인들과의 만남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⑪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
맙다!

September 23, 2013

트윗 2

Like 10

서울에서는 서양인과의 귀중한 만남도 종종 있다. 이달 9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글로벌포럼도 그랬다.

도쿄에 돌아와 있던 나는 포럼 전날 하네다에서 서울로 향했는데, 기내에서 만난 사람이 같은 포럼참가자인 마틴 팩클러 (Martin Fackler)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 신문에서야 종종 보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내 이야기꽃이 피었다.

그게 참, 처음엔 내가 서툰 영어로 대응했다가, 문득 그가 입에 담은 일본어가 너무 훌륭해 깜짝 놀랐다. 들어 보니 원래 중국어 전문으로 장기간 베이징특파원 경험이 있고, 게이오대학교에서 일본어를,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워 유창하다는 얘기다. “그랬군요, 마틴 씨도 사람이 짓긋네.” 쓴웃음 한 번 짓고 일본어 모드로 전환했다.

다음날 회의에서 마틴 씨가 이야기한 주제는 일본에서 바라본 미·중관계에 대해서였다. 이 두 나라가 세계질서의 핵심이 되는 G2로서 서로 협력하게 될까, 아니면 세계를 양분해 새로운 냉전을 전개하게 될까……. 그런 양극단으로 치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는데, 미국과 중국에 낀 일본의 골치 아픈 입장을 이야기해 흥미로웠다.

자, 나는 '동아시아의 화해' 에 관한 세션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8년 만에 만난 사람이 독일의 빌란트 바그너 (Wieland Wagner) 슈피겔 뉴델리지국장이었다. 전에는 도쿄, 그리고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아시아통' 이다.

2005년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중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나, 상하이에서는 일본 총영사관에 돌과 페인트통이 날아드는 소동이 벌어졌다. 나는 2주일 뒤에 상하이를 찾게 됐는데, 당시 상하이 지국장이었던 바그너 씨가 시위 상황을 들려줬다. 그는 군중이 “후진타오, 일본에 강하게 대응하라” 고 한, 당대 주석의 이름을 대놓고 호명하며 밀고 올라가는 외침에 놀랐다고 했다.

● 프랑스·독일 화해, 부러움

무엇보다 바그너 씨가 이 포럼에서 설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2차대전 후에 화해를 실현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였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관해서는 1998년 방일해 '화해' 를 선언한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금, 제2의 김대중 나왔으면” 이라 내비쳤다.

토론에는 서울대 박철희 교수와 프랑스의 르피가로 서울지국장 등도 자리해 열기를 더하며, 유럽과 동아시아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과, 그럼에도 극복해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나도 분투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이뤄진 화해는 부러울 따름이다.

그런데 커피타임에 그들이 화제로 삼은 것이 따끈따끈한 2020년 도쿄올림픽이었다. 모두 “잘 됐다” 며 기뻐해 줬지만, 한편으로 “아베 씨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는 건 아닌가” 신경 쓰는 모습이다. “아베노믹스와 방어력 확충이라는 조합은 메이지시대 부국강병을 연상케 하네요” 라는가 하면, “1936년 베를린올림픽처



아시아, 유럽에서 온 연구자와 저널리스트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눈 글로벌포럼. (중앙일보 제공)



아사히 eBook 신간
영토마찰은 이렇게 일어났다
동북아시아, 미래로 가는길
7월말까지 50% 할인 자세히 보기 >>

More AAA

Facebook

Twitter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⑪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맙다!



September 04, 2013

3월 입학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말았다. 6개월 가까이 매일 다닌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얘기다.

트윗 1

Like 25

럼 되는 건 아닌지?” 라는 짓궂은 농담도. 히틀러가 베를린올림픽을 국위선양에 이용해 나치의 독재실현으로 연결한 쓸쓸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나치 찬양이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폭언도 있었으니 이러한 연상게임이 되는 거겠지만, 나는 “설마” 하며 고개를 저을 뿐. 어찌 됐든 그들과의 대화는 자극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일본 국제교류센터 웹사이트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며 한일 간을 오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신문기자' 등이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서울에서 쓰는 편지' 글로벌포럼 언론인

1

Share



트윗

2

Like

10



댓글 입력...

댓글 달기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㉑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한 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타 같아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림없이 일본대사관 후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무공사가 아닌가. 한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트윗

1

Like

24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㉑즐거움과, 신촌에서의 하숙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월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소란하지만, 이를 바라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단신으로 와 있는 나는 자취가 서툰고 외식만으로는 재미가 없는데다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면 싶다. 대학가 신촌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트윗

3

Like

21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㉑대학원생들의 지적 교류, 일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의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재킷, 흰 바탕에 검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하는 재킷,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얼마 전 국민으로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한 색채의 '재킷 정치' 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트윗

5

Like

17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㉑강연, 공연, 공연. 세 가지 '고엔'으로 젊음을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연, 공연. 한국어 발음은 제각각인데 어째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이 '고엔' 이다. 지난 주는 그런 '고엔' 의 연속으로 기분이 크게 '업된' 한 주였다.

트윗

2

Like

2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㉔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맙다!

[English](#) [Japanese](#) [Chinese](#) [Korean](#)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문의하기](#)

게재 기사,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by The Asahi Shimbu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or republica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